

# 10월 출생아 12년만에 최대 증가...낙달째 2만명대 출생

### 혼인 건 수 1만 9551건...전년 동월 대비 3568건 22.3% 증가 광주 출생아 536명, 전남 689명...전남 혼인건수 19.3% 늘어

올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500명가량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 기준으로는 지난 2012년 이후 12년만의 증가 전환이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급증한 혼인이 출산까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 역시 10월 기준 지난 2014년 이후 출생아 수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와 혼인 건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향후 연간 출생아 수도 증가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전년 동월(1만 8878명) 대비 2520명(13.4%) 증가했다. 앞서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6년 9개월 동안 감소한 뒤, 지난 2022년 9월 소폭 증가했지만 불과 1달만에 다시 감소전환한 바 있어, 이어 올해 4-5월 두 달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고, 6월에는 감소전환했지만 또다시 반등해 7-10월 4개

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 1-10월 누계로는 출생아 수가 19만 9999명으로 전년 동기(19만 6193명) 대비 3806명(1.9%) 증가했다. 이 역시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만에 첫 증가전환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혼인을 미뤘던 커플들이 엔데믹 이후 혼인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 10월 전국 혼인 건 수는 1만 9551건으로 전년 동월(1만 5983건) 대비 3568건(22.3%) 증가했다. 혼인 건 수는 1-10월 누계로도 18만 1322건으로 전년 동기(15만 9381건) 대비 2만 1941건

(1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자릿 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혼인한 신혼부부들로 인해 내년 역시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 10월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와 혼인 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출생아 수는 10월 기준 536명으로 전년 동월(494명) 대비 42명(8.5%) 증가했다. 다만,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5085명으로 전년 동기(5268명) 대비 183명(3.5%) 감소했다. 올해 광주 출생아 수는 7월이 564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689명으로 1년전

(673명)보다 16명(2.4%) 늘었고, 1-10월 누계로도 6710명에서 6874명으로 164명(2.4%) 증가했다. 전남은 올해 1월(733명)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혼인 건 수는 10월 기준 478건으로 전년 동월(436건)에 견줘 42건(9.6%) 늘었다. 연간으로도 1-10월 누계 기준 4300건에서 4661건으로 8.4% 증가했다. 전남 혼인 건 수는 10월 기준 549건으로 전년 동월(460건) 대비 89건(19.3%) 증가했고,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5111건에서 5835건으로 724건(1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중기부 내년 26조 5000억원 정책금융 신규 공급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공급계획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26조 5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중기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분야별 공급 규모를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70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5300억원 등 정책자금에 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은 12조 2000억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지원에 1조 2200억원과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 6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 6358억원, 성장기 1조 6936억원, 제도약기 7501억원, 전 주기 4485억원을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용자 외에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6027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12조 2000억원이 신규보증으로 공급된다. /연합뉴스

### 광주신세계 4주간

#### 지역대학생 업무 경험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광주신세계가 내년 1월 23일까지 4주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유통업계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이 백화점을 방문해 지점별 근무사원과의 만남 등을 통해 유통업에 대한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현장 경험을 통해 진로탐색 및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신세계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올해 현장실습은 전남대 9명, 조선대 3명 등 총 12명의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실습에서는 플레이 스팟을 시작으로 본관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모든 백화점 구간을 경험하고, 신입사원과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유통



업 관련 취업 과정에 대한 조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통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고, 재직자와의 실전과 동일한 모의면접을 통해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지역 학생들의 관련 업계 취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이번 견학을 통

해 학생들은 어떤 상품들이 매장을 채우고 있고,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통해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아오도록 할 수 있는지 등을 알게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학생들이 백화점과 유통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향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 월 최대 3만3천원 보조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올해 연말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는 157만명으로, 600만 청년 4명 중 1명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 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9000원 높이는 것으로, 이 사업의 내년 투입예산은 3470억원이 된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 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홀리데이 스완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홀리데이 기프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은 오는 31일까지 '홀리데이 스완 프로모션'을 열고, 스완 디자인의 네크리스 3종을 홀리데이 기프트 상품으로 20% 할인기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 통계 집계 후 최대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 6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소매업(27만 7000명), 기타 서비스

업(21만 8000명), 음식점(15만 8000명) 등의 순으로 폐업자 수가 많았다. 폐업률은 음식점(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음식점 등에서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임금 미만을(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37.3%에 달할 정도로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해석했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 '아이어워즈 코리아' 2관왕

### 모바일금융·스마트앱어워드 대상

광주은행이 최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한 '아이어워즈 코리아 2024'에서 모바일금융 혁신분야와 스마트앱어워드 은행분야에서 대상을 수상,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아이어워즈 코리아는 국내 인터넷 전문가 및 전문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4000여명의 평가위원단이 기술·사용자 경험/사용자 인터페이스(UX/UI) 콘텐츠·서비스·디자인·마케팅 등 6개 영역에서 18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올 한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 시상식으로, 올해 21회차를 맞았다. 광주은행은 '모바일웹뱅크'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업데이트들로 모바일금융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 모바일웹뱅크는 로그인 없이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사용 빈도가 높은 메뉴를 홈화면 중심에 배치하고, UX/UI

UI 편의성 개선, 거래 속도 향상 등에서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앱어워드 은행분야에서는 '광주 Wa뱅크 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앱에서는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좌와 카드, 메뉴를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는 편의성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산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위원단은 광주 Wa뱅크 앱의 직관적인 디자인과 지역은행의 특색을 살린 서비스, 쉬운뱅킹·건강캠프·게임서비스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높이 평가했다. 박종준 광주은행 디지털본부장은 "고객분들께 광주은행만의 특색이 담긴 모바일웹뱅크와 광주 Wa뱅크 앱을 선보이고자 노력한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비금융 생활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필리핀산 바나나 싸진다...한·필 FTA 발효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시 우리나라가 부과하던 30%의 관세가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바나나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설명회는 산업부의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 발표,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 지침 설명, 한국무역

협회의 FTA 특성과 활용 지원 방안 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필리핀 수출 시장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연합뉴스

## 환율 급등 외환위기 이후 첫 1460원대 마감

원·달러 환율이 26일 또 올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 주간(낮 시간대) 거래 증가가 146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8.4원 댄 1464.8원에 장을 마쳤다. 주간 거래 증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1455.2원으로 출발했으나 바로 반등한 뒤 상승 폭을 키워 오후 3시 20분 1466.0원까지 뛰었다. 장 중 고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다. 환율은 지난 24일 야간 거래에서 1460원을 넘는 등 2거래일 연속 1460원을 웃돌았다.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변동

성이 확대된 모습이다. 달리는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치 상향과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9.67 (-10.85)
↓ 코스닥	675.04 (-4.47)
↑ 금리(국고채 3년)	2.648 (+0.022)
↑ 환율(USD)	1466.25 (+9.85) (오후 5시 55분 기준)